

구비문학에 나타난 꽃 원형

— 이야기와 본풀이를 예증삼아—

김현선·변남섭*

차례

1. 이야기와 본풀이 연구의 새로운 관점
2. 꽃 원형의 실마리
3. 이야기의 꽃 기능 확장과 변이
4. 꽃과 결합하는 요소들 : 꽃-물-새
5. 꽃 화소의 원형적 의미 탐색
6. 꽃 원형의 이론적 확장 가능성

<논문 개요>

이 논문은 구비서사문학 가운데 이야기와 본풀이에 나타난 꽃의 화소를 다룬 것이다. 꽃은 인간을 재생하는 요소로 인간의 피, 살, 숨 등을 살리는 구실을 한다. 이러한 화소를 민담인 <버들도령>에서 출발하여 본풀이인 <바리공주>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에 전승되는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이 화소는 여러 이야기와 본풀이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인간을 살리는 상징적인 기능을 거듭 수행하였다. 화소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속성을 지니면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원형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연구는 화소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종래의 병렬적 구조주의적 관점을 화소 연구로 전환하게 된다면 화소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반성하면서 장차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형 연구와 화소 연구가 서로 인접하게 되면서 연구의 차원을 드높이는데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시론으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꽃, 화소, 기능, 이야기, 본풀이

* 김현선은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 교수로 이 논문의 제1저자이고, 변남섭은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생으로 이 논문의 제2저자이다. 기본 논지 서술은 김현선이 하고, 문장 교정과 자료 보원은 변남섭이 했다.

1. 이야기와 본풀이 연구의 새로운 관점

우리 이야기와 본풀이 연구는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간에 이 둘은 각기 분리되어 연구되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비 서사전승이라고 하는 점에서 일치점이 있고, 하나인 이야기는 구비산문으로 전승되고, 다른 하나인 본풀이는 구비율문으로 전승되며 구비서사전승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공통점과 연관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 둘을 서로 분리해서 단편적으로 다루지 말고 하나로 연결해서 다루는 관점이 새로이 필요하다.

이야기 자료를 자체로 다루면서 이 자료끼리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가 의문이다. 이 의문이 이 연구의 기본적 출발점이 된다. 구비문학의 이론적 논란과 방법론적 쟁점이 많아서 이론의 난맥상이 많아 이야기의 소중한 점을 드러낼 수 없다. 이제 이야기의 자료더미로 되돌아가서 그 지점에서 기본적인 궁극적인 관점을 수립해야 마땅하다. 자료 자체를 연결 짓는 공통점이 화소인데 이 화소를 선택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하나의 이야기에서 이야기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인물의 행위에 관한 요소이다. 가령 남녀관계, 자연-인간관계,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다각도의 관계가 발생한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딸 등과 같은 관계의 부차적 변이가 발생한다.

이들의 관계 대립요소는 화소론적 시각에서 자주 거론되었다. 그러한 연구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유형론이나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이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따라가는 것은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히려 관계요소의 결합 속에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구현하는 원형적 화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원형의 개념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만 이야기에서 항구적으로 반복되면서 두루 자료를 포괄하는 상징이자 패턴일 수 있다.

그러한 원형으로 우리는 대립 요소로만 성립하지 않는다. 가령 막스 뤼티 Max Lüthi가 말한 평면성, 추상적 양식, 고립과 확장 등을 가능하게 하는 민담의 일정한 모티프 등에 보이는 주술적 도구나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¹⁾ 이들은 이야기에서 결정적인 구실을 하면서 이야기의 상황을 바꿔놓는 것으로 흔히 드러난다.

달리 톱슨 등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고민한 모티프 등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²⁾ 이러한 것은 형식적인 것일 수 있지만 형식을 넘어서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곧 대립요소의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서도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에 활용되는 것도 있어서 이를 원형적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야기나 이야기문학에서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 그것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풀이 등에서 두루 발견된다. 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꽃과 같은 것은 역사적으로 지속되고 이야기와 본풀이, 노래 등에서 다양하게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를 할 수 있으면서 이야기의 심층에 해당하는 원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야기의 순서,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이야기의 틀 등은 지속적인 연구의 가치가 있지만, 이제 여러 이야기와 본풀이에 반복되는 특정한 요소에 대한 탐구를 해야 한다. 이를 원형이라고 하고 탐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의 순차적 구조와 별도로 또한 이야기의 유형과 별도로 이 탐색이 필요한

1) 막스 뤼티, 『유럽의 민담』, 김홍기 역, 보림, 2005.

막스 뤼티, 『옛날 옛적에』, 김경연 역, 천둥거인, 2008.

2) Stith Thompson, *Motif-Index of Folk-Literature: Index A-K : A Classification of Narrative Elements in Folktales, Ballads, Myths, Fables, Mediaeval Romances, Exempla, Fabliaux, Jest-Books, and Local*, 2001.

시점에 이르렀다.

꽃에 대한 원형적 탐색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³⁾ 이 연구는 제주도의 본풀이나 이야기에 반복되는 것이 있음을 감안하고 이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을 주도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본고를 작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야기와 본풀이에 두루 존재하는 꽃에 대한 근본적 발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2. 꽃 원형의 실마리

꽃은 자연물이면서 문화적 창조물이다. 자연물로서 꽃은 고유한 생명을 가지고 인간과 무관하게 피고 지지만, 꽃은 인간에게 문화적 상징을 가진 원형으로 재창조되었다. 문화적 창조 가운데 흥미로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장식으로 쓰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되살리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장식품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여 시간과 공간의 길이와 부피를 더하는 것을 물론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세계적 보편 현상이다.

이야기로 구성된 것에 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영원한 생명의 창조물로 일정 정도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풀이 등에 전하는 꽃의 원형적 기능은 근본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 글은 꽃이 이야기와 본풀이에서 어떠한 구실을 하는지 찾아보고자 하

3)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이수자, 『큰굿 열두 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현승환, 생불꽃연구, 『백록어문』13호,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7.

편무영, 한국의 무불습합론(2), 『한국불교민속론』, 민속원, 1998.

정진희, 류큐 열도의 미로쿠 설화와 민속적 배경, 『류큐 열도를 통해서 보는 동아시아 문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2008, 43-54쪽.

는 것이 목표로 된다. 꽃의 아름다움이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복돋우며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이야기에서 두루 등장하지만 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한다.

<버들도령>이라고 칭하는 유형의 이야기가 꽃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⁴⁾ 이 이야기의 요체는 계모에게 시련을 받는 의붓딸이 한 겨울에 싱싱한 나물을 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버들도령을 만나서 그에게 나물을 얻게 된다. 의붓어미는 의붓딸의 행적을 쫓아가 마침내 버들도령을 해치고 다시 나물을 해오라고 의붓어미가 요구하자 의붓딸이 버들도령에게 가서 버들도령이 이전에 일러준 숨살이 꽃, 피살이 꽃, 살살이 꽃 등을 가지고 도령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의 결말이다. 이 과정에서 꽃은 죽은 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의 문면을 하나 보면 꽃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꽃의 핵심적 기능이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데 있다는 것이 이야기에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래 그걸 가와가주고 참 인제 그 숨살이꽃은, 삐살이꽃은 삐에 붙이고, 숨살이꽃은 숨에 붙이고, 살살이꽃은 살에 붙이놓고 인제 막 이래 참 일어 설란개 목이 막 한테 붙어가주고 살더랍니다.⁵⁾

꽃은 단일하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예문에서 확인하듯이 숨살이 꽃, 삐살이 꽃, 살살이 꽃 등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서 주목을

4) 김헌선, 『설화연구방법의 통일성과 다양성』, 보고사, 2009. 이 책에서 계모형의 설화로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 논의를 결과를 원용해서 이하 서술하기로 한다.

5) 최정여·친혜숙·조형호외, 계모와 전처딸(1), 『한국구비문학대계』 7-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7.

요한다. 게다가 각편에 따라서 꽃으로 되어 있지 않다. <버들도령> 유형 설화의 각편마다 거의 꽃이 일정하게 등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 꽃이 아니라 병이나 봉지(봉다리)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일정한 변이가 확인된다.⁶⁾ 이 이야기에서 본질적으로 꽃이 우선하는 것이고, 병이나 봉지는 후대에 변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착한 마음의 심상에 꽃이 있고 계모의 못된 행각을 깨닫게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 환기를 하게 한다. 계모의 악행을 미워하는 것도 잠시이고 어느 덧 연이의 착한 마음으로 죽어 없어진 버들도령의 불쌍함을 되돌아켜서 마침내 빼와 살을 갖추고 숨을 쉬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꽃의 주술적 능력에 강렬한 꽃의 체험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의 내용에서 꽃은 악을 물리치고 선으로 인간을 되돌려놓은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꽃은 여럿이고, 이것이 사시사철의 영원함으로 작용한다. 이 꽃의 용도를 알려주어서 버들도령도 살리고 계모의 손아귀에서 주인공인 연이는 벗어날 수도 있었다.

3. 이야기의 꽃 기능 확장과 변이

이야기는 단일하게 하나만이 아니므로 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료를 확장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귀납적으로 이를 확장해서 일일이 예거하는

6) 정상박외, 계모의 학대, 『한국구비문학대계』 8-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6. [“요 봉다리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한테 허쳐 노모 숨 터지는 봉다리고, 요고는 뭐 피 생기는 기고, 요거는 뭐 살 생기는 기고...”]

최래옥, 반반버들잎아 최공시아 문열어라, 『전북민담』, 형설출판사, 1979. [병이 한 쌍씩내리 걸리고 우로 걸리고, 병을 베품박에다 걸어 놔거든. “저 병을 무슨 병이나?” 허닌개, 저 푸른병은 무슨 병이나 헌개, “그것은 산 채로 칼 찔러 논 사람을 칼 빼고 낮아주는 살아나는 약이라.”고 각시가 이야기를 하거든.]

것은 온당하지 않다. 자료를 늘어놓지 말고 꽃이 <버들도령>처럼 상징성을 가지고 원형적으로 작용하는 본풀이와 이야기를 논의하기로 한다.

일단 이야기의 덩어리가 큰 본풀이가 대략 위에서 예거한 자료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꽃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곧 <바리공주>이다. 바리공주가 이승을 벗어나서 저승 어딘가에 가서 무장승 또는 무장식에게 양유수와 꽃을 얻어서 이승으로 돌아와 부모의 인산 거동을 만나서 꽃으로 환생을 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앞서 살핀 <버들도령>의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다. 물과 꽃이 함께 출현하고 있어서 꽃 하나로 된 것에서 벗어나지만 일단 꽃만을 분해해서 이를 다루고 절을 달리해서 물이 등장한 사연을 더욱 확장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이야기의 열개에서 꽃이 핵심적인 서사기능을 하지만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얽혀 있음이 발견된다. 이야기의 앞과 중간 대목에서 주인공인 여성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고난의 양상은 다르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의붓어머니가 가한 고통이라는 점에서 공통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여성은 이로 말미암아서 한 겨울에 봄나물을 찾아 나서거나 이승을 떠나서 저승이라는 죽음의 세계로 여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고통과 시련을 부여받고 자기 스스로 나서는 일을 하게 된다.

별다른 세계는 깊은 산속이거나 죽음의 세계이든 거기에 부모가 원하는 것을 갖춘 무엇이 잠재되어 있다. 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성주인공이 허락을 받고, 알고 있는 이른 바 패스워드를 부여받은 인물이나 신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여성만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이다. 그 경계를 통과하는 양상은 이야기와 본풀이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

게다가 그 고통을 이겨내면 항상 남성이 기다리고 있다. 부모에게 당하는 고통과는 다르게 수평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하나로 아울러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남성이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비밀을 쥐고

있는 것이 특징이 존재한다.

여성은 실행자이고 표면적인 삶을 벗어나서 이면적인 심층의 삶으로 안내하는 안내자 노릇을 한다. 여성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현실세계에서 벗어나서 신이한 세계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실행만 할 수 있을 따름이고 여기에 필요한 온갖 비밀은 남성이 가지고 여성에게 부과하고 돕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지 않고서는 생명의 비밀을 가질 수도 없으며, 새 생명을 이어나갈 수도 없고, 게다가 죽은 생명에게 소생의 힘을 전달할 수도 없음을 절감하게 한다. 여자와 남자라고 하면 다소 신비로움을 덜하지만 이것의 요체를 바꾸어서 두 개의 별도 남성과 여성은 궁극적 합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남성과 여성이 하나로 되면서 꽃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획득하게 된다. 둘의 합일이 반드시 성적 합일을 이끌어내는 것만은 아니다.

둘은 존재의 합일이며 정신적인 합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버들도령>은 서로 합쳐지지 않는다. <바리공주>는 석삼년 아홉 해를 살고 나서 자식을 줄줄이 낳는 육체적 동질감을 낳는다. 두 이야기의 원형적 속성은 남녀의 결합이 다소 이끌림으로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관계를 환기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순간적이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표층과 표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색다른 본풀이인 <이공본풀이>에서는 이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된다. 주인공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특징하게 이승과 저승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꽃을 찾아서 남성이 탐험을 하는 주체로 달라진다. 그러나 죽은 어머니를 살리게 되는 것에서 <바리공주>와 다르지 않다. 다만 다른 꽃이 부가되어 있다. 그것은 곧 소생하는 의미를 갖게 하는 꽃과 적대자를 퇴치하는 꽃으로 이중적인 기능이 있게 된 점이다.

꽃이 살리는 꽃과 죽이는 꽃으로 달라졌으며, 아버지에게 얻어 와서 어머

니를 살리고, 자신을 도와준 여성을 해치는 이질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작은 딸만은 살려두었다가 죽은 어머니를 살리게 된 뒤에 죽이는 변형이 생겼다. 어머니와 적대자의 딸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관계 속에서 할락공이는 소생하는 꽃과 멸망하는 꽃의 두 가지 용도를 구분지었다. 꽃의 기능이 분별되는 면모를 보여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라져 있고, 남녀의 합일을 어머니와 아들로 가져간 것은 이야기와 본풀이에서 가장 특별한 자료로 판단된다. <이공본풀이>는 민담적인 것은 아니고, 서사의 원형질이 이질적으로 작용하는 신화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선악이 확연하게 갈라지면서 환생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분명하게 한 이야기로 변이된 본풀이가 되었다.

이야기 유형에 원형의 심층이 있다면 그 원형은 의식적인 작용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변질되고 본디의 구성을 해체하여 다른 것으로 가져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거듭 확인하게 된다. 꽃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의 본질인 열개가 달라지면서 꽃을 기능하게 하는 심층적인 관계가 달라지게 된다.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이 관계마저도 해체된다. 원천강은 야광주와 연꽃을 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등사하는 신녀로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이고, 그곳을 등사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성은 전환된다. 마치 민담에서 나오는 <구복여행> 이야기처럼 이야기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꽃의 작용이 작용을 탈피하여 특정하게 주도권을 다투는 이야기로 원형이 의식화된 사례도 있다. 가령 그러한 이야기는 주제도 선명하고 선악 자체도 명확하게 작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가령 <창세가> <천지왕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등에서 꽃은 표면적으로 주도권을 가진 이야기의 요소로만 작동한다. 꽃의 기본적 상징도 중요하게 기능하지만 오히려 꽃을 두고

다투는 이야기로 꽃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구현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 점에서 이야기의 근본이 있다고 하면 이 점을 구성하지 못한다.

이야기에서 인간의 심층이 있다면 이를 자극하는 이야기는 민담에서 두드러진다. 반면에 신화나 본풀이는 민담과 달리 다소 표층적이고 표면적인 것임을 우리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신화적 속성을 가진 이야기가 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면적으로 민담적 열개를 가진 이야기도 있고 표면화된 구성 속에서 일부 민담적 틀을 가지고 있는 본풀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자료에서 꽃을 찾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명하다고 하겠다.

4. 꽃과 결합하는 요소들 : 꽃-물-새

이야기의 원형으로서 꽃은 단일하게 하나만 작동하지 않는다. 꽃만이 특정 인물의 이야기가 이야기의 이면에서 모두 소생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꽃은 다른 것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서 더불어서 작용한다. 그 때문에 꽃은 다른 것과 함께 어울려져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꽃, 물, 새 등으로 나타난다.

일단 하나의 이야기 유형의 각편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한다. <버들도령>에서 꽃이 물병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직능은 동일한데 꽃이 아니고 물병으로 바뀐다. 결국 버들도령을 살리려고 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꽃이 새 가지 이듯이 물병 역시 새 가지로 된다.

꽃과 물이 함께 작용하면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물과 꽃은 동일하지 않다. 생명을 이어가는 요소로써 물은 결정적이다. 꽃과 물이 나란히 등장하는 경우에는 <바리공주>가 가장 적절한 사례이다. 자료에 따라서

꽃과 물이 달리 구성되고 나무와 샘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꽃이 거세되고 이야기에 따라서 물만 등장한다. 샘물은 재생의 작용을 하는데, 흔히 <손 없는 색시>와 같은 자료에서 잘려진 손을 붙게 하는 재생의 요소로 되기도 한다. 나무와 샘물로 되는 자료는 흔히 <말하는 피꼬리와 춤추는 소나무>와 같은 자료에서 거의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⁷⁾

<버들도령>의 각편 가운데 병에 담긴 물과 괴랑새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물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의 구실을 하고, 괴랑새는 사람의 영혼을 뜻한다고 해서 각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각기 그 구실이 나누어지면서 일정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임이 거듭 확인된다.⁸⁾ 꽃, 물, 새 등의 상호 작용이 거듭 이루어진다.

꽃과 물과 새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말하는 피꼬리와 춤추는 소나무>에서 이점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 상징적인 요소들의 결합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보다 다른 의미를 갖도록 구성된다. 가령 이 세 가지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여성과 남성의 의미를 탐색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과 같은 사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이 남성을 찾아서 먼 곳으로 여행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하는 사례는 <바리공주>에 이어서 <말하는 피꼬리와 춤추는 소나무>에서도 발견된다. 새와 샘물, 소나무 등이 한데 어울리면서 죽은 이들을 살려내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앞서 살핀 사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에서는 원효가 관음보살을 만나면서 벼이삭, 물, 괴랑새 등을 순차적으로 구현하면서 위에서 말한 것

7) 최운식, <말하는 피꼬리와 춤추는 소나무>, 『충남의 민담』2권, 시인사, 2002.

8) 최래욱, 같은 이야기, 같은 책. [칼을 쏘 뺏게 청조새(靑鳥)가 나와, 청조새가 나와서 여가 붙고 저가 붙고 그래갖고, 뺏듯이 눌러 놓고 여기다약을 발라 놓고, 부엌에 가서 장작불을 피우고, 생쌀을 갈아서 미음을 입에다 발르고, 약 발라주고 또 미음 가지고 온개, 청조새가 들어가고 없어. 청조새가 그 사람 혼(魂)이라는 거여, 먼저 들어갔지.]

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벼이삭은 뾰다 안 뾰다고 하면서 익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희학질이 아니라 여성의 가임성과 불임성을 말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꽃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상징성에 있어서 변이가 이루어져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물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심각한 변이가 생겨났다. 물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생명수인데, 여기에서는 개짐을 뺀 물로 바뀌어서 성수와 정수로 시비분별을 이루는 준거로 되지만 여성의 가임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바뀌어 있다. 靑鳥는 원효에게 조금 전에 만난 인물이 바로 관음보살의 진신임을 알리는 구실을 한다.

<말하는 피꼬리와 춤추는 소나무>의 말하는 피꼬리, 춤추는 소나무, 샘물 등의 원형적 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 자료들이 서로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두 자료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각기 전승되고 변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전설화와 문헌설화가 동시에 연계된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점은 물병의 심상이 적대자를 물리치는 구실을 하는 자료 역시 이와 같은 각도에서 유념하면서 해석해야 한다. 물병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구슬로 한 차례 비약하게 된다. 사람을 살리던 물병이 여기에서는 누이를 물리치는 구슬로 둔갑한다. 물병에서 구슬로 핵심적인 전환을 이루어졌다.

<여우누이>와 같은 자료에서는 구슬이 핵심적인 구실을 한다. 물병에서 구슬로 바뀌는 소중한 근거를 적대자를 물리치는 꽃으로부터 도출된 것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병은 주술적인 도구로 적대자를 물리치는 연장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공본풀이>에서는 꽃과 물이 분리되어서 다른 기능을 한다. 할락궁이가 경험한 물 건너기가 세 차례 제시되는데 그 ‘대김(다짐)’은 어머니의 죽

음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차례대로 할락궁이의 무릎, 잔등이, 목 등에 찬 물이 곧 어머니가 자인장자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 경험하던 바이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다짐을 알리는 기능을 했다. 꽃은 죽은 어머니를 살리고 적대자를 죽이는데 사용되었다. 꽃과 물이 분리되어 별도의 서사적 의미를 갖도록 한 것은 이례적인 면모이다. 그러나 실제로 서천꽃밭에서는 물과 함께 사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거리가 먼 것만은 아니다.

자료가 한 군데 머물지 않고 이들이 복합되면서 여러 가지들이 다면적으로 작용한다. 이 요소들은 다층적으로 얽혀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간단하게 해명되지 않는 이야기의 복합적 이면이 단계적으로 펼쳐지는 셈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본다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심층에서 자료의 표층까지 지속적인 운동하고 변화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때로는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에서 보듯이 불교적인 설화 이른 바 聖譚 Legende과 같은 데서 드러나는 것이 확인된다. 신화적인 자료를 개조해서 사용하지만 이 전승은 민담과도 직결된다. 고구려신화의 유화가 겪는 시련과 잉태의 이야기가 원효와 관음보살로 달라졌으며, 원효와 벼이삭, 그리고 물 등은 유화의 곡모신적 면모와 잉태담과 직결되고, 파랑새와 같은 대상은 쌍비둘기의 후대적 둔갑임이 확인된다.

꽃에서 벼로 바뀐 것은 거듭 모습을 달리해서 이어지는 꽃의 탈바꿈이다. 가령 <제석본풀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남녀가 꽃이 아니라 쌀을 두고 생명력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야기로 바뀌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신화적 요소를 충분히 간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화가 민담과도 직결되는 화소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민담의 심층적 요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자료도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테두리에서 동일한 생명력을 구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쌀로

만 문제되는 본풀이가 사실은 벼와 깊은 관련이 있고, 벼는 꽃의 변이이고 꽃과 쌀은 하나의 테두리로 동일한 사고를 드러내는 것인 점을 확인하게 된다. 다만 <제석본풀이>에서는 새가 사라지고 없지만, <초공본풀이>에서는 이 새가 여전히 남아 있다.

꽃의 화소는 단일하게 머물러 있지 않다. 다른 것들과 자료의 변이를 이룩하면서 다각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이야기이든 본풀이이든 기본적인 열개인 남녀관계의 생명력과 재생의 원형으로 지속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꽃의 화소는 심층적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자료에 있어서도 전폭적이고 의미론적인 각도에서도 한층 세련된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인 이야기가 다른 종교의 영향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도 환골탈태하면서도 자료의 전통을 망실하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야기의 근간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시대를 달리해서 거듭 되살아난다고 할 수가 있다.

5. 꽃 화소의 원형적 의미 탐색

꽃 화소는 일단 특정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 단순하게 하나의 이야기 요소로 되지 않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마땅하다. 사건의 결정적 반전에 기여하고 이야기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요소로 된다. 남녀관계를 성립하는 핵심적인 작용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남녀의 근원적 합일을 통해서 이야기를 뒤집는데 꽃은 일정한 구실을 한다.

이렇게 보면 이야기의 순서와 관계없이 특정한 요소가 이야기의 부분으로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한 요소는 많지만 이야기의 순서는 무시하고 중심적인 기능을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으며, 꽃은 그 가운데

데 하나이다. 꽃의 화소는 한편의 이야기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꽃 화소는 한편의 이야기에서만 주도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는 아니다. 위에서 확인하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와 본풀이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한 꽃의 요소로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요소와 순차적으로 나열되거나 동시에 병렬되면서 이야기의 주도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러한 기능을 행사한다.

더구나 동일한 이야기에서만 이러한 기능을 꽃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자료에서나 다른 유형의 자료에서 이야기의 요점적인 면모를 과시하면서 변이되면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풍부한 이야기의 요소를 응집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야기의 범위가 무한하게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화소가 원형으로 작용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면모를 말하자면 포괄하는 자료의 범위가 매우 크고 넓어야 하는 점이 널리 확인된다. 이야기 유형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자료에서 널리 운용되는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갈무리하는 것이어야 진정한 것임을 알게 한다. 꽃은 이러한 각도에서 본다면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요소로 된다고 하겠다.

꽃은 이야기의 표층에서는 단순한 작용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면적인 심층에서는 여러 자료에 두루 걸려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심지어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의 이야기 요소로서가 아니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여기에서 퍼져 나간 것을 본다면 이는 심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이야기를 창조하면서 특정 요소를 가져와서 의미를 부여하지만 특정한 요소가 여러 사람에게 공감되고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인지되

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상징적으로 재창조되면서 이처럼 이야기의 패턴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의 산물이 아니다. 이야기는 이면에서 무수한 창조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듬어지고 거듭 활용되었다.

원형은 그러한 의미에서 특정 사회의 산물이다. 특정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문화적 창조에 일정하게 기여한다. 꽃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인간의 영원불멸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의식적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간적인 범위에서 일정하게 선택한 의식적 합의의 결과이다. 그 합의는 일관된 논리 같은 것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반복과 무한한 상징성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형은 의식적 선택이기는 해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많은 역사적 선택의 산물이고 집단적 의식의 집적된 결과이다. 여러 자료가 충돌하고 복사되면서 때로는 역사의 표면으로 분출하기도 하고, 이면으로 내면화되기도 하면서 원형은 지속과 변화를 거듭했다. 그래서 이야기에서 특정한 꽃 원형의 변이와 충동적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이야기의 표층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에 반복되고 거듭된 상징으로 작용하면서 이야기의 심층을 형성한다. 심층이 과연 무의식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무의식은 이야기, 꿈, 상징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이 있거나 한 것인지 재론의 여지가 있다. 마음의 누적된 결과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상징되는 것에는 특별한 인간의 경험과 창조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여러 이야기에서 특정한 자연의 대상을 가져와서 이야기의 반복과 국면 전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듭 확인된다.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에 의도된 것과 의도되지 않

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꽃 원형은 의도된 결과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꽃이 지도자의 권능을 확인하고 지혜를 확인하는 <善德女王知幾三事>라고 하는 것이 있다. 꽃에 대한 이야기가 지혜를 상징하는 것임이 『三國遺事』와 『三國史記』 모두에 나타난다. 단 한번만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기저에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징의 심층이 작용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연못에 있는 개구리도 상징적 작용을 한다.

이 상징을 연쇄적으로 연결하자 심각한 의미로 해독하고 이 의미를 해독하는 지혜를 강조하는 이야기로 된다. 이 사실 자체가 역사적인 이야기의 심층 속에서만 이해 가능한 것이다. 왜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졌는지 사실 자체로는 쉽사리 납득이 안되지만 꽃 원형의 전통 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야기의 표층과 심층이 있다고 하는 논의는 무의식의 가설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아니다. 이야기의 다양한 창조를 인정하면서 그 창조에 표면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반복과 상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보다 본질적인 것에 주목하면서 이야기의 열개에 적용되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면 이야기에 반복적 상징을 이루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이야기의 유형적 이해로 이를 수 없는 특별한 심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야기의 포괄적인 해석이나 다양성을 구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본질적 요인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의 창조적 저력이 바로 여기에 있으면서 심층적 반복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원형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상징적 요소여서는 안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야기의 전체와 부분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해야 하며, 여

러 자료에서 두루 발견되어야 하고, 상징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원형으로서 일정한 구실을 할 수 있다.

6. 꽃 원형의 이론적 확장 가능성

이 글은 이야기와 본풀이에 등장하는 꽃의 화소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마련되었다. 민담에서 출발하여 여러 다른 본풀이와 문헌설화까지 두루 살펴 보았다. 민담이 원형적인 화소였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작업의 핵심은 꽃이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자료를 중첩시켜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공통점을 추출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자료를 어느 것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은 전혀 다른 순서를 요구하겠지만 작업을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같을 수 있다. 민담인 <버들도령>에 나타난 것이 유일한 원형적 화소의 출발점은 아니다.

꽃이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전제로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완전하게 남아 있는 자료가 바로 <버들도령>과 <바리공주>이다. 이 둘 가운데 가장 기본적 자료로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으면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버들도령>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꽃의 화소가 자료적 다양성을 해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 결과 꽃은 생명의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여러 자료에 기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원형 논의의 이론적 기반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의 이론이 아니다. 가령 칼 융의 원형분석론이나 노드립 프라이의 원형비평의 이론이 보탬은 되지만 이론적 근간이 이 문제를 해명하는데 유용한 것은 아니다.⁹⁾ 가장 중요한 것은 원형이 매우 광범한 뜻으로 쓰이지만

9) Carl Gustav Jung, *Collected Works, Volume 1-10*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원형의 개성에 관한 고정적 유형으로 많은 시간에 걸쳐서 관찰된 결과로 특히 집약적으로 압출된 것을 원형이라고 하겠다. 다양한 자료에 두루 출현하는 것을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특히 확충이라는 방식에서 구체화 된다. 둘째, 발체의 뜻을 가지고 위대하게 표현된 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형이라고 한다. 가령 여성의 원형 가운데 우리를 자극하는 선녀와 같은 것은 이에 적절한 사례이다. 아름다움 자체의 화신이 이러한 원형이다. 셋째, 문학적인 비평 유형에서 이를 원형이라고 한다. 반복되는 것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평가와 상징의 개념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로 원형은 해석될 수 없다.

아울러서 유형 분류나 이야기의 구조적 연구로 이 문제를 해명할 수 없다. 원형은 화소 연구에 근접하는 이론적 대상이다. 병렬적 구조의 개념으로 화소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화소는 이야기를 이루는 전송의 긴요한 부분이지만 원형을 해명하기에는 이론적으로 불완전한 대목이 있다. 관습적 열거나 단순한 화소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형은 특정 인물관계를 근본적으로 관련짓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화소에 가까운 것이지만 곧 화소가 원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짜나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왔다. 그러한 연구로 적절한 본보기가 곧 구조주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이야기의 형식과 내용을 하나로 합치면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일정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야기를 결정하는 것이 각편과 유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야기를 일정한 관계로 연결하고 이들의 기능을 집약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야기의 요소가 다른 여러 가지 자료에 반

1970).

Northrop Frye, 『비평의 해부』, 임철규 역, 한길사, 1997.

복적으로 재현되는 것을 찾아내서 새롭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모티프를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티프는 간단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너무 잘게 쪼개면 자료더미나 무더기에 묻혀서 이것의 본질적인 면모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지점에서 단순 열거나 관용적인 반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주저 않고 말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를 이야기의 본질적인 측면과 역사적 성격에서 찾아내어 핵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다룬 꽃은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이야기에서 항구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고, 이와 다르게 이야기와 결이 다른 본풀이에서도 이 요소가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성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이 요소는 궁극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야기와 본풀이 등에서 이러한 원형은 여러 각도에서 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앞으로 원형 탐색에서 중요한 일은 관계항과 특정 요소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심층적인 면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녀관계와 꽃은 매우 심층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성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동물-사람관계에서 특정하게 작용하는 썩과 마늘은 이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자료의 관련양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관계항과 원형은 동질적인 차원에서 문제로 되지만, 어느 쪽은 선택해서 들어가던 이야기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 점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원형은 가장 간단한 입문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달리 관계항의 핵심을 자극하는 것일수록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학문의 근본적인 문제로 되 돌아왔다. 그것은 이론과 자료의 관계이다. 자료로 하는 자료학은 자료더미가 실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자료에 천착하다 보면 큰 문제를 망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학은

자료를 소홀하게 여기므로 헛된 망상에 빠져서 빈 데를 잡고 헛된 것을 매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과 자료는 적절한 선에서 서로 보완되어야 마땅하다.

자료학의 자세함에서 벗어나고 이론학의 헛된 성글음에서 벗어나야 마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료가 말하면서 자료 이상의 시각을 제시하면서 자료를 포괄하는 궁극적인 전환이 있어서 이론과 자료는 보완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시각에서 이 논의는 두 가지를 지향했다. 하나는 이야기 연구를 새롭게 해보자는 막연한 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와 이론의 접합점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생각의 일단을 아무런 전제 없이 막연하게 설정하였다고 본다. 그 점이 향후에 다듬어져야 한다. 또한 자패석이나 생명을 살리는 잎사귀와 같은 세계적인 자료와도 견주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현선, 『설화연구방법의 통일성과 다양성』, 보고서, 2009, 1-722쪽.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1-506쪽.
- 이수자, 『큰굿 열두 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1-500쪽.
- 정상박외, 계모의 확대, 『한국구비문학대계』 8-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6, 1-628쪽.
- 정진희, 류큐 열도의 미로쿠 설화와 민속적 배경, 『류큐 열도를 통해서 보는 동아시아 문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2008, 1-86쪽.
- 최래옥, 빈번버들잎아 최공시아 문열어라, 『전북민담』, 형설출판사, 1979, 1-394쪽.
- 최운식, <말하는 피꼬리리와 춤추는 소나무>, 『충남의 민담』 2권, 시인사, 2002, 1-409쪽.
- 최정여·천혜숙·조형호외, 계모와 전처딸(1), 『한국구비문학대계』 7-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7, 1-728쪽.
- 편무영, 한국의 무불습합론(2), 『한국불교민속론』, 민속원, 1998, 1-428면.
- 현승환, 생불꽃연구, 『백록어문』 13호,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7, 1-320쪽.
- Carl Gustav Jung, *Collected Works*, Volume 1-10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0).
- 막스 루티, 『유럽의 민담』, 김홍기 역, 부림, 2005, 1-259쪽.
- 막스 루티, 『옛날 옛적에』, 김경연 역, 천둥거인, 2008, 1-208쪽.
- Northrop Frye, 『비평의 해부』, 임철규 역, 한길사, 1997, 1-670쪽.
- Stith Thompson, *Motif-Index of Folk-Literature: Index A-K : A Classification of Narrative Elements in Folktales, Ballads, Myths, Fables, Mediaeval Romances, Exempla, Fabliaux, Jest-Books, and Local*, 2001.

* 이 논문은 2008년 동계학술발표회(2009.2.17-18)에서 발표와 토론을 거친 논문으로 2009년 6월 8일 심사 완료하고 6월 16일 게재 확정함.

<Abstract>

A study on the Flower archetype appeared
on the oral literature
- By case of illustration on folktale and
shamanistic oral epic -

Kim, Heon-Seon(Kyonggi University)

Byeon, Nam-Sup(Kyonggi University)

This treatise deal with a motif of flower appeared on folktale and shamanistic in oral epic literature. Flower function to live blood, flesh, breath by elements of human revival. I checked traditional state of this motif by that started at folktale <Buddle-doryeng : Buddle-an unmarried young man>, shamanistic oral epic <Baree-gongjoo : Baree-princess> and several other folktale.

As a result this motif is appeared on several folktale and shamanistic in oral epic and carried repeatedly out symbolical function of human revival. Motif can be archetypal in a point that is repeated constantly having attributes of time and space.

This study becam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fundamental view point. If we change the view point of preexistence paratactic structural to the study of motif, do expected that can do new study in future with reflecting on

fundamental view point on the study of motif. By archetype study become in contiguity with motif study each other, become to the conclusion that can carry out fundamental function in raising dimension of study.

This study is meaningful as such an essay.

Key words : Flower, Motif, Function, Folktale, Shamanistic oral epic